

# 기부는 **하트**를 타고... 유저와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

## 착한 게임이 온다

⑧ 선데이토즈

국민게임 '애니팡'으로 기부 유도 게임 재화인 하트 활용해 재미 UP 유기견 보호, 소외아동 등에 지원 사내선 다각적으로 기부활동 펼쳐 "기부의 가치 나눠 선순환 이루고파"

퍼즐 게임에서 하트를 주고 받듯 기부를 게임처럼 즐기면서 하는 곳이 있다. '애니팡' 시리즈로 유명한 캐주얼 게임사 선데이토즈다.

2009년 설립된 선데이토즈는 대중적인 캐주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한다. 최근에는 애니팡 시리즈의 후속작 '애니팡4'를 3년 9개월 만에 출시해 퍼즐 게임 장르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다.

선데이토즈는 게임 이용자가 함께 즐기면서 '착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인 하트를 사용하거나 기부하면, 해당 숫자만큼의 금액을 선데이토즈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진행된 유기동물 지원 이벤트가



(왼쪽부터)선데이토즈 김태열 사회공헌팀장과 심준희 사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데이토즈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선데이토즈는 '스누피 틀린그립찾기'에서 총 9만명의 이용자가 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선데이토즈는 유기견 보호소 신축 및 사료 지원, 유기묘 긴급 구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외 아동 돕기에도 나선다. 지난 5월 '위베어 베어스 더퍼즐'에서는 성남시 소외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했다. 같은 달 '애니팡 사천성'에서 진행한 이벤트 기부금을 사회적기업에 전달했고, 이달에는 '상하이 애니팡'에서 경계성지능 아동 예술치료 교육지원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착한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명절에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을 모아 사내에서 경매를 하고 모인 금액을 기부하는 '설 클린뱅크'가 대표적이다.

선데이토즈 사내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자판기'도 기부에 동참한다. 사랑의 자판기는 음료, 견과 등을 100원에 판매하고, 판매액은 전액 기부한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자판기 수익금을 모아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그룹홈 6개소에 66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제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데이토즈 사회공헌팀의 일문일답.



'위베어 베어스 더퍼즐' 기부 이벤트 이미지.

-게임 이용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눈에 띈다. 처음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심준희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기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다. 애니팡 시리즈에서 하트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부도 게임하듯 쉽고 재미있게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김태열 "선데이토즈 임직원 중에 자원봉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계신다. 자원봉사 모집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이 분들은 공지 5분만에 모두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느꼈다. 보통 자원봉사는 주말에 나가는데도 말이다. 다른 임직원들도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관

심이 높다."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반응은 어떤가.

심준희 "보상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덕분에 게임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로 유기동물 지원이나 소외아동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선정 이유가 있다.

심준희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사회공헌을 하고자 했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취약하고, 유기동물 역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또 회사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맞이한 분들이 꽤 많아서 유기동물 지원에도 관심이 높다."

-앞으로 회사에서 나아가고 싶은 사회공헌 방향성이나 궁극적 목표가 있다.

김태열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사회공헌 이벤트를 통해 기부의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속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공헌의 방향이다. 또 사내에서 하는 핸즈온 봉사활동 같은 행사들을 만들어 임직원분에게도 봉사와 기부의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위기를 기회로... 기업행사 온라인화 가속

참석 한계 없고 제품 홍보에 탁월 행사 차별화, 기술 문제 보완해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을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를 알리는데 한창이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SK㈜C&C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과 캐나다 AI 솔루션사인 엘레먼트 AI사의 CEO인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출연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현실화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

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 창출 방법을 소개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오는 10일 AWS 데이터 분석 특집 웨비나를 연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AWS 서비스의 관련 기능을 익히고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 및 배포화하는 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컨퍼런스 'SEF 2020'을 지난 2일 온라인으로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속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SEF2020는 사전 신청자 수 1만명을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온라인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0'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탑재될 새로운 운영체제(OS) 'iOS 14'를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은 애플은 5일 동안 100개 이상의 기술 및 디자인 관련 세션을 열어 개발자들이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행사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참석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고 작은 온라인 행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참가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고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은 온라인 행사의 한계점이다. 또한 시청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끊기면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한정적인 인원으로 진행해 참석할 수 없었던 소비자도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어 제품을 알리기에 좋다"면서도 "온라인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차별점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적자 늘 빠진 CGV "방역 관리 최선"

2분기 적자 폭 1분기보다 확대 전망 신작 러시로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띄어왔기, 전자명부시스템 등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CJ CGV(이하 CGV)가 띄어왔기,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며 안전한 영화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벌어진 적자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CGV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33억원, 영업손실 71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6% 감소했다. 투자 보류, 인력운영 효율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자구안을 실행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영화 개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관객은 전년 동기 대비 52.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6% 감소한 1278억원,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월부터, 터키는 4월부터 극장을 폐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극장을 운영 중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관객수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2분기 적자 폭은 1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 1분기 중국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6% 급감한 158억원, 영업손실은 354억원이다.

지난 6월부터 극장가에는 '침입자' '결백' '#살아있다' 등 국내 신작들이

개봉했다. 휴일 관객수는 19년 평균 100만명에서 4월 5만명으로 급감했으나, 6월 마지막 주에는 41만명으로 40%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극장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는 15일에는 배우 강동원 주연의 영화 '반도'가 개봉한다. 이어 '강철비 2' (29일), '태넷' (8월 12일)이 개봉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물란' '007 노 타임 투 다이' 등 국내외 작품들이 가을부터 연달아 개봉을 앞두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GV는 영화관 자율 지침으로 '띄어앉기'를 실천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확산 및 온라인 예매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CGV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리뉴얼된 CGV 모바일 앱에서는 각 고객의 상황에 따라 관람하기에 더 편한 시간대나 극장을 빠르고 쉽게 선별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자명부시스템을 도입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역학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명부시스템 확산을 추진해왔다. 영화관이 이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GV는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더욱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영화관에 직접 방문해 발권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온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 인증을 절차가 끝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시몬스 "싱글침대 구매하면 할인 혜택"

시몬스는 싱글 침대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퍼싱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싱글(SE) 또는 수퍼싱글(SS) 사이즈 매트리스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한해 5~10%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이용해 수퍼싱글 사이즈 매트리스를 구입하면 100만원대 침대는 36개월 할부 시 월 2만7000원 내면 시몬스 침대를 구입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